



지난 12일 법회에서 불교 지도자와 여야 불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서원했다.

東大 새 이사장 스님 소란 속 임기 시작

영답스님과 일부 동문 학생들 반대 속 법인사무처장 복직 등 직인 인사 단행 “낮은 자세로 동국 발전위해 헌신” 약속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새 이사장 일면스님이 12일 첫 출근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영답스님과 일부 학생들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법인 사무처 직원 인사를 실시하고 일면스님을 결재권자로 입력된 전산 시스템이 가동되는 등 차츰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이사장 직인을 영답스님이 갖고 있는데다 영답스님을 따르는 사무처 일부 직원이 업무 협조를 하지 않아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시작되는 12일 새벽 출근한 동국대 새 이사장 일면스님은 학교 구성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가장 낮은 자세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태도로 동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님은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던 일부 동문 학생

들을 강제로 내몰지 않고 첫 날 하루 종일 대화로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둘째날에는 이사장실이 폐쇄돼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집무를 시작해 전 이사장 정련스님이 해임한 법인 사무처장 중민스님을 복직시키고, 법인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

스님은 “이사장실이 폐쇄돼 당분간 회의실에 있으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전자결재하기 때문에 장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명도소송을 진행해 이사장실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일면스님은 “지난 2월 23일 289회에서 진행된 이사장 선출이 적법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변호사를 통해 이사장을 정당하게 선출했다는 자문을 얻었다. 인정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누차 당부했다. 영답스님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출근 첫날 일면스님이 이사장실을 점거한 학생과 동문들을 설득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임기는 정련스님 임기인 3월11일까지 “정상적인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니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련스님으로부터 직인과 인감을 인수인계 받고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영답스님은 2월23일 이사장 선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법한 절차로 이사장이 선출되면 직인과 인감을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답스님은 이사

장 임기가 끝났다고 해도 새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13일 오전 법인사무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영답스님은 “회의록이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또 법인사무처 직원이 직무대행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전자결재과정을 변경해, 법인 감사에게 조사를 요청했고 결과에 따라 관계자 징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생과 동창회원들은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절절한 조치와 원점에서 재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영답스님은 “총장 선임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이사장이 누가 되어도 관계없다. 내일이라도 이사직에서 물러날 용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임 이사장 정련스님은 11일 일면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중도 가르침으로 여·야 국민 모두 이로운 정치하자”

국회 정각회 새법당 개원 신년법회

여·야 불자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각선원 이전 개원법회를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서원했다.

국회 정각회(회장 강창일)는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1층 정각선원에서 ‘새법당 개원 및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정각회 회원들의 신년도량인 국회 정각선원은 지난 1995년 4월 권익현 초대 정각회장의 노력으로 국회 본관 지하2층 103호실에 72.7㎡(22평) 규모로 개원했다. 20년의 세월동안 노후화와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해 이전불사를 추진해 본관 지하1층 105호실에 115.7㎡(35평)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중창불사의 원력을 실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불기 2559년에는 국민화합의 정신이 만발해 국운이 더욱 융성해지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 집사이지만,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에 종사하는 1400여 명 모두가 팔정도(팔정사상)를 지키겠다는 마음자세로 살아가는데 이 법당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를 통해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대화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어에서 위편 버섯의 점심식사 경매와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아는 척 하지 마라’는 명언을 소개한 뒤 “각자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가지치게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어 “정치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그 이름이 곧 대승의 마음(政無方所 名大乘心)”이라며 “이 대승의 쟁점은 중도에 있는 만큼 중도(中道)로써 여·야와 국민 모두가 이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중도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한 안홍준 국회의원은 발원문을 통해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대행을 본받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구현할 수 있게 자비광명을 비취주옵소서”라고 발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선사,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해 정각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주요영국회 정각회 부회장, 권익현 정각회 초대 회장, 장윤석·이현승·임수경·서영교 불자 국회의원,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손충덕 국회 직원불자신도회장, 전총련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불교중흥 위해 노력” 종단협 사무총장 월도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한국 불교종단협의회회장)이 신임 종단협 사무총장 월도스님(천태종 총무원장·사진)에게 “불교 중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월도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



은 “홍파스님이 30년간 활동해 오신 종단협 사무총장을 월도스님이 받아 회원 종단과 소통되도록 앞으로 주요 역할을 잘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도스님은 “회원 종단의 다양한 의견

을 듣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월도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홍파스님께서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오시며 종단협의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큰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지만 앞으로 회원 종단 스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아우르는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했다. 월도스님은 특히 “군소 종단 스님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회장단 종단을 중심으로 이사 및 회원 종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회원 종단이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월도스님은 지난 10일 열린 종단협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임태규 기자

KTX 해고 여승무원 ‘대법 판결의 위험성’

조계종 노동위 토론회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해음스님)는 기독교교회협의회(기교회)인턴센터, 원불교인턴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KTX여승무원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KTX 승무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위험한 이유’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코레일 측 열차팀장의 출입문 개폐, 안전장치 취급 등의 안전업무에 여승무원들의 인사, 안내방송, 승차권 확인 등의 승객서비스업무와 분리한 것”이라며 “안전 교육과 책임을 승무원 업무에서 분리시켰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 문제만이 아니라 승객 안전의 위험까지도 직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하정은 기자의
현장에서
tomato77@bulgyo.com

할아버지 위한 사찰은 없는가

서울서 홀로 사는 올해 아흔살 K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살아계셨던 4년 전까지만도 조계사를 자주 다녔다고 한다. 초하루는 물론 지장재일 약사재일마다 기도와 불공을 위해 절에 오는 할머니를 따라와서 절 곳곳을 누비며 할머니 기도가 끝나길 기다렸고 때가 되면 공양도 함께 했다. K 할아버지는 “마누라 떠나고 나

니까 절에 갈 일이 통 없다”고 했다. 이따금씩 할머니 위패를 모신 승가사에 가지만, 절에 가도 법당서 삼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일도 갈 곳도 없다는 게 K 할아버지의 이야기다. 아흔다섯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할아버지 역시 “절에 가면 다리 펴고 편하게 앉아 있을 곳도 없고, 종무실 소파에서 잠시 쉬기

라도 하면 젊은 보살들이 나가라고 하더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두 할아버지가 출퇴근하듯 오가는 데는 복지관이든, 복지관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무용과 체육, 음악 등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 있어 재밌고 유쾌하다. 다소 답답하고 비좁은 실

내공간이지만 “복지관 없으면 못산다”고 말한다. 이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사찰이 공간을 내주고 뭔가 할 일을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 편안하게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채와 같은 지대방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할머니 불교” ‘치마 불교’라는 말로 여성 중심 기복불교문화를 맞아 기 전에, 사찰이 먼저 갈 곳이 없어 절 곳곳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해인사승가대학 입학모집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法寶宗刹
海印寺
www.haeinsa.or.kr

모집대상

- 신입생 00 명
- 편입생, 재입학생 : 2학년 0 명

구비서류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해인사에 와서 안내에 따라 작성) 1부
2. 자기소개서(자필·6하원칙) 1부
3.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총무원 발급)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본적 확인용) 각 1부
5. 건강진단서(행자교육원 당해연도 수료자제외) 1부
6. 은사스님 추천서 1부
7. 은사스님 인적사항 (법명, 속명(한글·한자), 당호, 주민등록번호, 승적번호)
8. 승가대학 학력 이수 증명서(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준비물

1. 사진(3×4, 만의가사 복장) 3매, 여권사진 2매(여권발급용)
2. 대가사(사미는 만의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3. 주민등록 주소 이전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122 해인사승가대학(필수사항)

전형방법

- 서 류 접 수 : 편입학, 재입학, 신입학 ⇨ 불기2559(2015)년 4월 2일(목요일)
- 입학갈마일시 : 편입학, 재입학, 신입학 ⇨ 불기2559(2015)년 4월 3일(금요일) 오전 8시
- 합격자 발표 : 불기2559(2015)년 4월 3일(금요일) 오후 6시
- 입 학 식 : 불기2559(2015)년 4월 4일(토요일)

문의처

678-895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122 해인사승가대학
전화 (055) 934-3081, 3100
학감스님 (055) 934-3046, 010-3642-8106

